

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,

6월 24일(월) 오전 10시 30분

- 화성시 전곡산단 내 (주)아리셀 공장에서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 발생
- 사망자 23명, 부상자 8명
(중국동포 17명, 라오스인 1명, 내국인 5명 사망)
- (주)에스코텍의 자회사인 (주)아리셀은 군용장비용 리튬일차전지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.

50일이 지난 지금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.

사진 출처: 연합뉴스

불법파견, 실제 없는 업체를 낀 불법고용 난무

- 일하는 사람은 100명, 신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불법 고용
- 작은 사업장으로 위장해서 법적 의무 회피
(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회피)

기본적인 안전 조치, 교육조차 없었던 고위험 사업장

- 공장에서 3년간 4건의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지만, 위험 방지
- 형식적 위험성 평가에 속아 노동부는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

희생자 대부분 이주노동자, 위험 업무의 이주화

- 매년 1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 사망
- 위험물질 적재로 실질적 비상구도 없던 위험 현장

군납용 리튬배터리 잦은 폭발사고에도 정부 감독은 無

- 최근 5년간 군에서 리튬전지 화재 31건 발생
- 감독 안 한 노동부도, 발주처 국방부도 위험 무시



아리셀 공장의 화재 진행 내부 CCTV 화면
2024.6.24



지난해 잇따른 군용 리튬전지 창고 폭발

YTN, "평평 또 군용전지 폭발...대책은 지지부진" 기사
2020.6.29.

정부의 무대책에 숨어 불법행위 일삼은 박순관 대표
사고의 원인은 모두 드러났습니다.

언론 앞에선 거짓 사과,

6월 25일

"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."

회사의
개별 합의 종용

7월 5일

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,
30분 만에 끝난 첫 교섭

유족이 요구하는
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도
주지 않으며
신속 합의만 재촉

유족 앞에선 100% 회사 잘못 아니다.

불구속 상태의 박순관 대표는

유품 수령증에 희생자들의 소속을 '메이셀'(불법 파견 업체) 로 쓰고
아리셀 처벌불원서를 내밀며 '메이셀'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
불법 고용관계 은폐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.

도대체 왜 정부는 박순관 대표를 구속하지 않습니까?

법을 외면하는 정부

※〈2명 이상 사망 시 구속영장 신청〉
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 32조

유가족에게 수사 상황 숨기는 정부

실효성 없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는 정부

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살인자 박순관 구속수사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

서명운동 기간 : 8월 20일(화) ~ 9월 3일(화)까지 2주간 진행

온라인 링크 : <https://bit.ly/아리셀박순관구속수사>

서명 제출 : 노동부, 경찰청에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

